

# 재일韓人 戰犯출신자모임 소송

【서울 11월 13일 특파원】 재일한국인 전범출신자 모임인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재일한국인 전범출신자 모임인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제출한 지 1년여가 지난 뒤,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제출한 지 1년여가 지난 뒤,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제출한 지 1년여가 지난 뒤,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제출한 지 1년여가 지난 뒤,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제출한 지 1년여가 지난 뒤,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제출한 지 1년여가 지난 뒤, 「同進會」(同進會)가 29세의 한 청년을 상대로 유일한 형용언을 밝힌 뒤 「본인처럼 애용하고 불행」을 제기했다.

## “日은 戰犯누명 보상을 법정투쟁”

국외공청에서 판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지원면호사 이마무라씨는 전쟁책임에 대해 「과거에 누렸던 자는 현재에도 멀찍이 있다」라는 바이체커 독일대통령의 연설문을 상기시키며 「이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기소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한국인으로서 연합군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범은 모두 1백48명이었는 데, 이중 1백20명이 포로 수용소감시요원으로 근무했던 비전투요원이었다.

기아와 질병과 중노동속에 서 말은 연합군포로들이 죽어간 책임이 감시원들에게



◇동진회 회원인 文濟時(69)의 43년 자카르타 포로수용소시절의 모습. 文씨는 2년기한으로 포로감시요원에 끌려갔으나 2년이 넘어서도 제대시켜 주지 않은채 패전을 맞아 미군으로부터 포로학대의 누명을 쓰게 됐다.

太平洋전쟁때 포로감시원 끌려가 “有罪”

### 戰後처리 깨끗이 매듭을

재판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1백23명중 23명은 현재 회원을과 함께 일본의 전 후처리개 깨끗이 매듭지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 사람에겐 생애전 정수한. 일본제사의 비가 포로인이라면서 「다시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말했다.

5년 同進會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연합군재판에 불응한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운동 을 시작했지만 일본정부는 「68년 한일합정의 파파 보상」이라는 소말렸으며, 외국국적자의 대한 보상을 원호해택의 근거법이 없다. 「동진회」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同進會회원들은 석방후 「일본의 전쟁수해에 협조

을 일방적으로 바랄만 한 후 했다. 「일본정부는 당시 일본 을 다녔어야 했으며, 북한 을 출신자들은 일본과의 국교 가 없기 때문에 귀국할마져 막혔다. 일본정부가 뿌리내릴 수 밖에 없었다. 현재 회원은 30여명이지만 생활고로 인한 자살(2명), 정신병 원입원(중사 1명)으로 회원 수는 계속 줄어든다.